

제 7장 한국의 ана키스트 신채호 I

◆1교시 : 신채호 1

▲의열단은 ана키즘인가



1922년 겨울 1923년 초에 신채호가 의열단 선언,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했다고 해요. 조선혁명선언에 비해 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 대회선언문이 신채호 선생의 생각을 잘 보여주고 있는 듯 해요. 시간적으로 5년이 흐른 후 두 번째 선언문을 썼고, 동방 무정부주의 연맹 활동하다가 일본 경찰에 잡혀가죠.

의열단이 성격을 달리하죠. 단장인 김원봉 같은 사람은 처음 ана키즘에도 공감을 하던 사람이고, 의열단은 공산주의 계열로 많이 흐르게 되요. 처음에는 같은 사회주의 계열이었던 거죠.

1920년 되면 일본이나 사회주의 인식이 깊어져서 사상들에 대한 분화가 나타났죠. 고토쿠의 경우 1900초반 활동하다가 ана키스트로 발전되는 경향이 보였고, 1910년대 오스기 사카에는 무정부에 관한 지향을 밝힌 것이고,

1920년대 사회사상계가 관심을 가져온 주제인데 구한말 시대부터 조선이 일본에 점령당하고 나던 시절, 사상계의 관심과제가 무엇이었나.

조선이 처해있던 시대적 조건 때문에 사회주의가 광범위하게 수용되는데, 그때 사회주의는 초창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프리에의 공상적 사회주의라든가, ана키즘이라든가 혹은 영국의 페비어니즘(Febianism)이 있어서, 단계적 발전, 사회주의로의 주장하는, 예를 들면 사회민주주의도 사회주의란 이름으로 조선에 들어와 있었죠.

조선이 처해있던 제국주의에 의한 전체적인 압박, 식민지로 넘어가는 과정이 생기는데, 조선 내부적으로 봉건적 모습이 첨예화되었죠. 광범위한 기층 농민들은 조선의 지배계급의 압박으로 봉기를 끊임없이 일으키거나, 일본의 지배가 심할 때는 근대적인 국가를 세우는 것 뿐아니라 제국주의 압박을 넘어서는 체제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동시에 있었죠.

그런 이중의 억압이 있었던 상황에서 수용되었던 것이 범사회주의였고, 거기에 주로 ана키즘이 포함되어 있었죠. 의열단이 ана키스트들의 단체냐, 처음에는 조선의 독립과 그것을 추구하기 위한 직접 행동을 하는 것으로 만들어졌죠. 그 계기는 1919년 이후 상해 임시정부 들어서고, 다양한 계열의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나타나죠.

조선혁명선언에도 그것에 대한 비판이 길게 나와요. 3장, 외세의 힘을 빌려 독립을 이루려는 경향, 먼저 우리가 실력 양성을 해서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과 대비해서 민중직접혁명의 방법이 ана키스트들의 방식이기도 하고, 의열단이 채택한 방식이기도

하죠.

직접적으로는 조선혁명선언에 나오는 제거 대상들이죠. 조선총독 및 각 관공서에서 일하는 사람들, 일본 천황 및 일본을 구성하는 사람들, 적의 일체 시설물을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의열단이죠.

처음 시작할 때는 ана키즘과 연관된 거구요. 조선혁명선언을 다른 ана키스트들의 도움을 받아 작성을 하죠. 김원봉이 의열단을 만들면서 이 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하는가의 고민을 했죠.

그때 있었던 사람이 신채호를 비롯한 독립운동, 사회운동, 혁명운동을 하던 사람들이죠. 신채호 선생에 의하면 독립운동이 곧 혁명운동이었죠, 독립투사는 스스로를 투사라고도 불렀고 혁명가라고 스스로 불렀죠. 스스로 독립혁명가라고 생각했죠.

예를 들면 ‘한 혁명가의 회고록’이라는 책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일본이라는 제국주의 지배세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일부 세력을 몰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독립을 넘어서서 혁명과 똑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이유는 사회체제를 바꾸는 것, 민중이 직접 나서서, 강도들, 일본이죠. 나아가서는 일체의 정부로 표현되죠.

그런 것을 배경하는 운동이 조선의 독립이었으므로 그런 의미에서 혁명으로 불렀고, 조선혁명선언도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구성원들은 다양한 계열이 있었죠. 민족주의 사회주의 등등, 단원들의 구체적 성향은 의열단이 만들어진 초기에는 ана키즘이 많았고, 김산의 일대기 ‘아리랑’을 보면 의열단 단원들, 영화 ана키스트, 낭만적인 모습으로 총이나 도시락 폭탄을 가지고 다니면서 상해나 기타 대도시에 있었던 일본 관료를 없애는 활동을 한거죠.

김원봉의 경우 초기에 ана키즘을 비롯한 급진적 세력들과 공감을 하죠. 구체적인 방안은 공산주의 ана키즘은 달라지지만 의열단이 추구한 직접혁명, 직접행동, 민주주의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효소로 보아 사회변혁을 이루려했던 사람들이고, 나중에는 공산주의자들, 김원봉의 영향이랄까요. 처음에 같이 활동을 하다가, ана키스트적 성향의 사람은 다른 활동을 하죠.

▲신채호의 활동

무정부주의자동방연맹이 만들어진 것이 1920년대 후반이고요, 이 후 온 중국을 떠돌면서 일본 본토에서 조선인들이 여러 가지 ана키스트단체를 만들었어요. 상해나 남경, 중국의 남쪽이니까, 남화한인무정부주의자연맹도 있었고, 조선반도 내에서는 진우연맹, 흑기연맹, 흑우연맹이 만들어졌다가, 소식지 내다가, 해산되는 것이 1930년대까지 이어지고요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ана키스트들이 참여했는데 역사적으로 묻혀있었고, 1990년대 말부터 드러나는 상황이죠. 신채호의 경우 1929년에 경찰에 잡히는데, 그 때는 완전한 ана키스트 운동가가 되어서 운동을 펼치는데, 동방무정부주의연맹 운영을 위해, 기관지의 발행을

하기 위한 돈이 없으니, 위조지폐를 만들죠.

위조지폐를 찍어서 바꾸려고 대만에서 다른 돈으로 바꿔서 그 자금으로 무정부주의 활동을 하려했는데, 잡히게 되는 경위가 위폐검사 때문인지, 구체적으로 잡히는 순간의 일은 모르겠는데, 신채호가 수배중이었으므로, 경찰과의 쫓고 쫓기는 것이 있지만, 단재 신채호의 사이버 역사관에 가면 자료들이 꽤 많아요. 주소는 danjae.or.kr

위폐사건이 발각이 되어서 잡혀가고 대만에서 10년형을 선고받고 여순감옥, 대련에 있는 감옥에 이감되죠. 여순감옥은 악명높은 감옥이었죠. 안중근, 신채호도 있다가 1929 잡혀서 30년에 재판이 끝나고, 1936년에 뇌일혈로 병사를 했죠.

많은 이들이 애석하게 생각했죠. 감옥생활이 고단했다고 해요. 신채호 선생이 강직해서 일본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고 하죠. 세수할 때 조차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들고 세수를 했다고 해요. 일본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는 표현이죠.

감옥생활이 힘들었을 듯 해요. 편하게 지내려는 것을 거부하고 감옥에서 돌아가신게 안타까운데 삶은 그렇게 끝나고, 1880년에 태어났는데, 지금은 대전 광역시인 행정구역으로 충북 청원군, 청주 쪽에 가면 신채호 기념관과 묘소가 있어요.

감옥에서 돌아가시고 화장을 했다고 하는데 한국이 들어서고 나서 독립운동가들을 다시 보고 배우자는 움직임이 1980부터 시작되죠. 전두환 정권과도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통성이 없는 정부가 독립운동가들, 아나키스트 활동가들을 국가의 이름으로 다시 불러세우는 작업을 하죠.

신채호 선생도 그런 분위기에 따라, 물론 그 이전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존경을 했지만, 국가에서 모금운동을 하거나, 생가도 꾸미고, 유해도 고국으로 가져와서 안장을 하고 묘소를 짓고, 동상도, 영정도, 있죠. 아나키스트 동상이 서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해요.

◆2교시 : 신채호 2

▲신채호에 대한 편향, 문제점



살아 있을 때도 살아있었던 사람이었고, 죽어서도 살아있는 사람이다라는 말도 했다고 해요. 신채호의 남긴 유산이 크다고 볼 수 있죠. 잘 알려져 있지만 저명한 민족주의자 역사학자, 언론인, 소설가 독립운동가, 혁명가, 등의 다양하고 열정적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신채호와 관련된 한국사회가 지금까지 신채호에 대해 보여왔던 일종의 편향, 제한된 관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1880년에 태어나 어렸을 때 천재로 한학을 배우고 동양인식의 세계관을 정통으로 배우죠. 25세에 성균관 박사가 되요. 당대 제일 뛰어난 학자가 된거죠. 그때 신문에 바로 주필이 되어 활발한 언론활동을 펴죠. 지금의 민족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이 민족사관인데, 만주는 누구땅이냐라고 할 때, 발해 역사를 다시 복원하고 조선 민족의 활동 영역이 단순히 한반도에 조그만 한반도에 머문 것이 아니라 만주를 포괄하는 것들, 역사적으로 발표하죠. 글로도요.

1910년 조선이 일본 식민지가 되고나서 망명길에 오르는데 옛날 고구려의 유적들, 지금의 국정교과서를 통해 고구려의 활동상을 배우지만, 조선말에는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죠. 조선들이 생각하는 고구려가, 백제가, 발해가 우리나라였다는 생각을 안하고 살았죠.

신채호의 경우 민족사관에 비롯한 조선의 역사를 썼다고 볼 수 있죠. 고구려를 조선의 역사로 편입되게 된 거죠. 민족주의자 입장에서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가 반도에 갇혀 있었던 게 아니라 큰 저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제국주의 세력, 식민지로 영토를 만들려는 것에 대항하는 것으로 생각했죠. 그런 사상을 당시에 사회진화론으로 불렀죠. 약육강식, 적자생존, 우생열패의 사회원리, 자연계에서 볼 수 있던 원리를 인간 삶의 모습까지 끌어올린 학설이죠. 허버트 스펜서가 19세기 말, 다윈이 발견한 진화론이죠. 진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선 강해야하고 강한 것이 진화하고, 약한 존재들은 죽는다는 거죠.

▲제국주의와 사회진화론

제국주의에서는 사회 진화론을 본질적으로 받아들여요. 강한 국가가 되고 싶다는 욕망이 강해야 살아남죠. 약소국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병합해도 상관없다는 것이 진화론에 기초한 생각이죠.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주는데, 일반적 제국주의자들 그것에 반대해서 활동한 공산주의자들, 레닌도 사회 진화론에 영향을 받았어요.

강한 노동자 국가를 만들어 자본가들의 공격을 노동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힘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한 거죠. 사회진화론을 받아들였다기 보다는 그 영향 속에서 자유롭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회진화론의 부정적 측면을 완전히 받아들인 것은 제국주의자들이나 니찌가 완전히 최악의 상황까지 받아들여 그것을 끌고 간거죠.

그 사람들이 말한 것은, 열등한 인종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우등한 백인들만 살아남아야지 자연계의 법칙에 맞는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생존의 가치조차 인정받지 못했죠.

힘을 길러 자기도 강해져야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런 담론 자체에 그대로 갇혀있는거죠.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보는 가운데, 거기에서 힘을 길러 경쟁해서 이겨야지, 내가 잘나야지, 일류대 가야지, 권력이 생기는 거죠. 끊임없이 과외를 하고 돈을 쏟아붓고 하는 거죠.

▲사회주의와 사회진화론

아나키스트들은 사회진화론 자체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죠. 레닌시절, 소련이 보였던 모습들이 국가주의적인 경향, 소수민족들을 억압하는 경향이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회진화론이 남아있던 담론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거죠.

아나키스트들은 그것을 넘어서는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구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아나키즘이 퍼질 수 있었죠. 동아시아는 일본에 의한 제국주의화가 진행되고 있었고, 청일전쟁, 러일전쟁에서 이기고, 군사력을 키워서 강한국가는 강한 군사력이라고 본거죠.

일본의 경우도 열등감이 있었죠. 서양에 비해 우리는 뒤쳐졌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을 통해 부국강병을 한거죠. 강력한 군대, 지도자가 민중을 이끌고 가야한다고 했죠. 일본의 경우 천황제가 있어서 그것을 잘 끌고 간거죠.

사회진화론의 장점, 이론체계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나라가 일본이고, 중국의 변법사상가들도, 양개초, 강유이, 들도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아 운동을 펴죠.

19세기 말이 되면 일본이 힘을 키워 동아시아 자체를 침략하려고 했기 때문에, 중국도, 사회진화론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었죠. 청일전쟁에서 지기 전까지, 일본은 스스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 청은 그럴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아편전쟁에서의 충격이 있었죠. 일본에게 패하니까 이대로는 안되겠다. 엄청난 개혁이 필요하다. 변법자강이죠. 비슷한 사상적 틀거리를 흡수한거죠.

일본이 저렇게 각종 최신무기로 무장한 국가가 되었으니까 법제 개혁, 신식군대를 따라하게 되죠. 조선의 경우 더 늦은 상태였는데, 내부적인 모순, 봉건적 잔재가 남아있었고, 밀바닥에 있었던 사람이 큰 고통, 세금, 의무, -역 등이 나오죠.

봉건지주들이 소작농에게 가을걷이의 대부분을 가져가 버리는,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 살 수 없게 된거죠. 봉건적 체제를 넘어서는 것, 사회진화론적인 거였죠. 서양의 것을 늦게 받아들여 발전이 늦다고 생각한거죠.

조선의 경우, 서구사상이 1880년대에 많이 퍼졌죠. 아나키즘이 언제 전파가 되었느냐, 학자들이 보기에는 중요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우리도 관심을 가질 수 있죠.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죠.

일본은 고토쿠 슈스이(幸徳秋水)가 있었고, 중국은, 일본에서 활동하던 중국 유학생이 만든 천이파,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하던 중국 유학생들이 아나키즘을 받아들인 신세기파가 중국의 아나키스트의 시작이 되었다. 조선의 경우 조금 늦죠.

◆3교시 : 신채호 3

▲신채호의 조선 부강에 대한 고민

아나키즘에 관련된 소개는 계속 이루어져요. 신채호도 아나키스트 중, 유명한 사람은 동방에는 고토쿠 슈스이(幸徳秋水)다라는 얘기를 했죠. 아나키스트에 대한 정보, 저작은 그 전부터 소개가 되고, 본격적인 운동의 차원에서 아나키스트에 기반한 운동을 한 것은 1920년대 이후죠.

신채호의 경우 조선에서 무정부주의 운동을 처음 시작하고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인물인데, 사상적 변환을 거치는데, 성균관 박사가 된 후 대일매일신보, 황성신문의 주필로 활동하면서 조선 민족이 어떻게 부강해져야 되는가를 고민 했었죠.

일본이 쳐들어오려고 하고 노골화된 상태였고, 1905년에는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외교권도 박탈되는 상황인데, 누가 봐도 뻔했죠. 일본이 받아들였던 제국주의화의 길을 걷게 했던 논리, 사회진화론의 논리에 따르자면 동아시아는 전쟁과 경쟁만 우글거리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죠. 일본이 먼저 치고 나갔죠.

신채호를 비롯한 사람들이, 지금의 아나키스트들은 그것을 거부했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쉽지 않죠. 고등학교에서 일들 보면, 경기도 광명시 소재 고등학교에서 UCC를 만들어 학교가 얼마나 비리가 많고 인권을 유린하는 가를 인터넷에 뿌렸는데, 비리 재단들이 학생들을 억압하는거죠.

무한경쟁체제를 계속 주입시키는거죠. 일류대학을 가게하기 위해 사교육비를 늘게 만드는, 자기 자식이 일류대를 가든 못가든, 경쟁에서 뒤처지면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의 체제인데, 사회 진화론의 논리가 아직도 유행하는 것이고요. 아직도 극복이 안된거죠.

논리를 가지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진영의 대립도 마찬가지이죠. 계속 군비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누가 먼저 우주에 가냐, 핵무기를 개발하느냐, 신기술을 도입하느냐, 그런 것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사회원리에 반하는 운동을 했던 아나키스트들은 공상적이고 현실사회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과 논리를 폈다는 이유로 배척을 당하기도 했고, 스스로 소멸하기도 했어요.

▲신채호의 사상적 전환

신채호는 언론인으로 활동을 했고, 1910년 망명길에 오르죠. 일본이 점령한 땅에 살 수 없다. 황국신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였죠. 만주를 떠돌면서 생활을 하게 되요. 거기에 있었

던 고구려 유적들, 발해 유적들을 살펴보면, 조선상고사같은 저작들이 나오죠

신채호의 민족주의의 경향이 일본이 강제합병을 하기 전에는, 조선이 처한 두 가지 모순, 체제내적 봉건적 모순을 민주화된 체제로 만드는 것, 왕의 통치가 아닌, 법에 의한 통치를 위한 체제를 만드는 것과 동시에 제국주의 세력의 압박을 떨쳐내는 두 가지로 고민하다보니 까 시민적 민족주의의 경향을 보였다.

조선이 패망한 이후는 혁명적 민족주의를 보이죠. 살고 있던 나라가 빼앗긴 후에는 혁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민족주의에서 탈피해서 아나키스트가 되는 과정이 나오죠.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거죠.

일본의 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구나, 강한 일본을 만들어야한다고 부르짖던 그들과 다르지 않구나, 3.1운동의 영향을 보면서 소수에 의한 운동이 아니라 한꺼번에 들고일어나는 운동도 가능하구나도 느끼고, 임시정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경향이 여전히 부르조아 민족주의에 빠져있어서 외세와 손을 잡는다고거나, 신채호가 보기에는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죠. 당장 혁명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 실력을 키워야한다는 사람들, 다양한 경향들이 있는데, 조선혁명선언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강도짓을 당한거죠. 우리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당장 들고 일어난 경험이 있다는 거죠. 조선 전역에서 촛불을 들고 일어난 것처럼, 만세운동을 벌였죠. 그 힘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급진적인 활동을 벌여야 된다는 것이 신채호의 믿음이었죠.

다른 민족주의자들과는 입장이 달랐죠. 크로포트킨의 영향도 많죠. 고토쿠 슈스이의 저작들, 크로포트킨, 러시아의 아나키스트인 이석정들이 뛰어난 아나키스트들인데, 무정부주의를 자신의 사상으로 받아들인 거죠.

▲신채호의 민족주의와 아나키즘의 변화

언제나, 시점이 언제나에 따라 사람마다 논쟁이 되고 있는데, 신채호의 경우, 조선에서 걸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나키스트와는 담을 쌓는 사람들도 신채호를 민족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연구를 했는데, 동상이 세워지고 기념관이 건립되고 선생의 영정이 모셔져있는 상황이 된거죠.

논자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죠. 신채호와 언제 민족주의자에서 아나키스트가 되었냐, 사실 국가주의에 입각한 사람들, 대부분 기존의 연구자들, 아나키스트계열 말고 국가주의로 연구를 했던 사람들은 1920이후 조선혁명 선언을 집필한 1922-1923인데, 점차 아나키스트로 되어 갔다. 빨라야 1920년 무렵으로 얘기하죠.

아나키스트에 동정적인 계열의 학자들은, 한국 아나키스트의 백년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더 빠른 거죠. 1920년 이전에 아나키스트가 되어 있다고 하죠. 동방아나키스트들과의 교류, 개인적 고민, 신채호가 썼던 글들, 이런 것들을 통해, 일찍 아나

키스트를 받아들였다고 파악하죠.

대표적 논쟁지점은 언제인가, 또 민족주의, 자신의 활동근거로 삼았던, 민족주의와 화려한 불꽃같은 삶을 살았던 무정부주의와의 관련성은 무엇인가. 한 인물인데, 사상적인 편력을 보이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논쟁이 있었죠.

말년에 ана키스트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는 것, 아주 철저한 독립투사로 살았다고 기술하는 거죠. 대부분의 국정교과서, 혹은 학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신채호 평전, 사이버 역사관, 3.1절 언론기사, 무정부주의자로 변신한 이후의 신채호를 기술하지 않고 철저한 치열한 독립투사의 삶을 살았다. 귀감이 되는 사람이다.

과연 신채호의 ана키즘 사상이 귀감이 된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안하죠. 신채호가 1928년에 쓴 동방무정부주의연맹 북경대회선언문을 보면 신채호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받아들여라, 읽어보아라, 말하고 싶어요.

민족주의와 ана키즘의 사상적 변화를 뭐라 표현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생각,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 가치관이 드러나게 되는데, 민족주의를 버리고 ана키즘으로 간 건지, 민족주의가 성숙 발전되어서 ана키즘으로 간 건지가 나타나게 되죠. 민족주의와 ана키즘에 관련된 흥미로운 논쟁, 1920년대 살았던 한 사람에 관련된 논쟁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진 함의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